

변화하는 인쇄산업의 미래, 직시하자!

4월4일부터 11일까지 8일간 영국 버밍엄 NEC(National Exhibition Centre)에서 개최된 IPEX2006이 연 인원 8만2537명이 방문한 가운데 막을 내렸다. 이번 전시회는 인쇄산업의 글로벌화를 반영하듯 최근 성장세에 있는 동유럽, 중동,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각각 2천여명이 방문하는 등 총 방문객의 40%가 해외에서 온 것으로 집계됐다. 드루파2004에 비해 신기술·신제품 출시가 많지는 않았지만 자동화·통합 워크플로를 필두로 프리프레스 분야와 디지털 프린팅 분야의 융합과 환경관련 이슈가 두드러졌다는 평가다. 본지는 가장 많은 변화를 보이는 프리프레스업계의 동향에 대해 IPEX 참관자 기고를 신는다.

공정자동화·통합화, 무현상 판재 관심 고조

IPEX2006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인쇄 공정에서의 자동화와 준비시간의 단축을 통한 효율성 증대였으며, 이는 거의 모든 상업 인쇄기 공급업체의 공정에서 볼 수 있었다. 두 번째는 디지털인쇄에서의 생산성의 증가(60페이지/분)를 통한 경쟁력 증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프리프레스 분야에서의 공정 자동화와 통합화 그리고 무현상 판재에 관한 관심이 큰 흐름을 형성했다. 이 세 가지 테마 중, 프리프레스 분야에 대한 현 인쇄 시장의 트렌드 및 요구 사항과 전시회 기간 중 각 사가 제시한 솔루션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현 인쇄 시장의 4가지 트렌드

첫째, 인쇄 회사의 합병 및 세계화에 따른 ▲대형화 및 분/공장 생산, 관리 시스템 ▲공정 및 정보 관리의 필요성 증대 ▲규모의 경제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비용 절감, 이익



극대화, 생산성 향상의 압력과 관련한 ▲끊임없는 가격 인하 요구 ▲끊임없는 마감 시간 단축 요구 ▲새로운 기술로 인해 덜 숙련된 작업자 채용 가능 ▲공정뿐만 아니라 모든 것이 디지털화로 변화됨으로써 거래처와의 관계 역시 기존의 관계 중심에서 디지털화로 변환 ▲전통적 인쇄 방식 대안으로서의 압력이 운전, 디지털 인쇄 분야에 강화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의 증대 ▲작업 관리는 생산 자체보다는 정보를 다루는 일이며 고객은 생산에 대한 좀 더 많은 정보를 필요로 함 ▲예전의 생산 중심에서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 등을 들 수 있다. 넷째는 환경적인 요구의 증대이다.

시장에 대한 고객 주요 요구사항

첫째, 글로벌 수준의 멀티미디어 의사소통 지원과 관련한 ▲출판과 인쇄후가공으로의 확장 ▲미디어 자산의 관리 등을 들 수 있다.

둘째, 제판 과정에서 비용 절감 및 생산 효율성의 극대화와 관련한 ▲고객에게 적합한 완전 자동화 디지털 워크플로 ▲정확한 작업을 통해 에러 및 재작업의 최소화 ▲배우기 쉽고, 사용하기 쉬운 사용자 편의성 ▲서비스 비용 절감에서 전체 시스템 보유 비용의 절감 ▲디지털화된 기술의 활용을 통한 비싼 아날로그 작업의 최소화 ▲향후 업그레이드 가능성 등을 들 수 있다.

셋째, 서비스 지향적이라는 측면에서 ▲고객과의 커뮤니



케이션의 증대 ▲생산 관점에서 서비스 관점으로 변화 ▲컴퓨터를 통한 통합화된 공정 관리 필요 ▲모든 생산 공정에 PDF/JDF 워크플로를 통한 연결 등을 들 수 있다.

넷째, 더 나은 관계의 특성 및 무현상 솔루션과 관련해 ▲더 나은 내구성, 안정성, 인쇄 적성 ▲판 굽기 없이 UV 인쇄 가능 등의 요구사항이 있다.

각각의 솔루션 선보여

상기 고객의 요구 사항에 대한 솔루션으로 아그파는 ApogeeX Workflow/Delano WebApproval, Publish, Production을, 코닥은 Prinergy Publish/Connect, Synapse Insite, Synapse Link을, 하이텔베르그는 Prinect Workflow/Printready system 등을 선보이고 있다. 이중 아그파가 선보인 Delano(델라노)는 인쇄 프로젝트의 관리를 위한 시스템이며, 인쇄물 주문접수에서 제품의 생산과정, 완성, 출고까지 전 공정을 총괄하는 인쇄회사의 경영 툴이다. 이는 인쇄 전체 공정의 계기판과 같은 역할을 하며 공정 진행에 대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디자이너, 소개업자, 출력소, 중개인, 인쇄사 등에 제공한다. 출판사·인쇄사를 위한 온라인 포털 사이트로서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제품 업데이트 지원되는 특징이 있다.

국내 인쇄산업의 발전을 위한 활발한 논의 기대

IPEX 전시회와 관련해 주최 측의 로렌스 로버츠(Laurence Roberts) IpeX 2006 대표와 존 브레이저(John Brazier) Picon사 대표는 “지난 몇 십 년 동안 그래픽 분야

는 디지털 혁명에 동참해 왔으며 이에 따라 인쇄사도 많이 변화했다. 그러나 공급자와 인쇄사 역시 인터넷의 잠재성과 인쇄사 고객들과의 새로운 비즈니스 관계의 성립이 시작됐다. 21세기에서는 디지털 워크플로의 도입으로 원청자와 인쇄사간의 일의 단계를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었으며, 인쇄업계는 디지털화된 기반을 통해 많은 수확을 할 수 있었다”라고 밝혔다. 이러한 말을 보며 개인적으로는 왜 한국처럼 IT 기반이 잘 갖춰진 IT 선진국에서 디지털화된 솔루션의 장점을 가지고 실제 경영이나 제작에 사용할 수 없을까? 이번 전시회에서 선보인 디지털화된 솔루션들은 국내 인쇄산업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인가? 이러한 이유가 실제로 국내 인쇄 산업에 적용해서 가질 수 있는 이익이 없기 때문인가? 아니면, 솔루션을 가진 한국지사들이 이에 대한 준비 작업 및 한국화가 덜 되어서인가?와 같은 의문을 가져왔다. 그러나 앞서 말한 것과 같이 인쇄산업은 갈수록 세계화, 대형화 될 것이며 전체 공정 효율성 중심의 생산보다는 서비스 중심으로 변화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것은 인쇄 산업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국내 업체 간의 경쟁력 제고의 문제가 아니라 향후에는 국제적인 규격 및 경쟁력을 요구할 것을 뜻한다. 이는 곧 이러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다면 향후 국내 인쇄산업은 갈수록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판단을 내리게 한다. 앞으로는 이러한 문제에 대한 국내 솔루션 공급자와 국내 사용자간에 좀 더 상세한 토론과 분석이 있어야 할 것이며, 이를 통한 국내 인쇄 산업의 경쟁력 제고에 대한 논의가 좀 더 활발히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박웅식 아그파그래픽스/아그파코리아 차장